

통일 칼럼

북한의 언론 상황

북한에도 기자가 있긴 하다. 하지만 여느 나라 언론의 기자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하고 문제를 비판할 수가 없다.

지도자 우상화와 그리고 체제 선전이 기자들 보도의 본질이다. 그런데 최근 기자의 이름을 내세우고, 주요 소식을 전하는 기자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평양 인근 농촌 마을에서 열린 입주 행사 현장이 보도됐다. 조선중앙TV는 “여기는 평양시 강남군 장교농장 분장 1작업반 마을”이라고 소개한다.

이날 조선중앙TV는 기자를 투입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살림집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각종 성과 보도에서 유독 기자를 앞세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 소식의 경우 ‘특파기자’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 중요 보도에선 기자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경향이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된 특징이다. 조선중앙TV의 구성원



정복규
논설위원

대부분은 ‘방송원’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아나운서와 기자는 물론, 사회자까지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같은 인물이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아나운서로 등장했다가,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 기자로 투입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진행에 연가나 체험까지 맡아서 하는 이른바 ‘아나테이너’ 역할로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직함을 별도로 붙이고 보도에만 집중하도록 해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왜 기자의 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철저하게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전·선동 매체다. 따라서 북한 기자들의 활동을 언론 기능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 기자들은 수령을 우상화하고 당을 찬양하는 임무를 숙명처럼 수행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무대에서 드러난 북한 촬영 기자들의 과열된 취재 양상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성사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당시 북한 기자들은 경쟁이라도 벌이듯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데 열을 올렸다.

그리고 이 같은 과열 경쟁은 최근 열린 중국 정상회담 기념행사에서도 이어졌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 기자들의 보도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일부 대중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강일심 기자의 보도다. 드라마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배우로 첫발을 내디딘 강일심은 이후 조선중앙TV 방송원으로 활약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그녀가 조선중앙 방송위원회 기자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강일심 기자의 보도는 문화와 여가, 체육 분야에 집중돼 있다.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통해 당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무리 콘텐츠를 달리 해도 북한 보도의 본질은 최고지도자 찬양과 우상화,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이라는 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당, 국가, 혹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 충성심, 애국주의 이런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초점화되는 방식이다. 북한 기자들은 체제를 위한 선전, 선동의 핵심 전사로 불린다.

사설

텅텅 빈 전주 신도심 상가

전주 신도심 대형 상가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대형 상가들의 임대료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주시 송천동 예코시티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마다 임대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자재들도 쌓여 있었다.

평일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상점 주인들도 거의 나간 상태다. 해당 상가는 약 300개 점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상가에 들어온 점포는 100여개 가량으로 알려졌다. 실제 층당 1~2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상가가 지어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워지지 못한 점포들이 많다.

장사가 잘되는 곳도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이 공실이다. 임대료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펼쳤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다.

전주시 혁신도시의 한 대형 상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층마다 비어있는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가 안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1층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상가들이 많이 차 있지만, 여전히 공실인 건물이 많다. 해당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1년간 임대료 무료, 임대료 50% 인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약 25% 수준으로 전해졌다. 상가 보유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개인 보유분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성지 논란

요즘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 어느 의원 출입문은 길 툇없이 열리고 있었다. 또 다른 의원은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저희는 위고비 처방전만 발행하지는 않고, 진료를 보시려면 반드시 제품도 함께 구매하셔야 해요. 2.4mg 주사제 기준 43만9000원입니다.”

의사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부터 날아왔다.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39만5384건, 하루 평균 1526건씩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가 ‘위고비 성지’라고 불리는 30개 병·의원에 집중됐다.

이들 30개 병·의원 중 25곳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는 5개 병·의원이 ‘성지’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위고비 처방을 쉽고, 싸게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며 ‘ؤل림’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ؤل림’이 병·의원 간 환자 쟁탈전을 만들며 제대로 된 문진 없이 빠르게 처방하는 기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성지’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위고비는 애초에 BMI(체질량지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비만 치료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약품으로 추가할 만큼 탈모 같은 미용성형 목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약사 및 한의사만 가능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두로 건드리는 건 모두를 건드리는 것”



지난 16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시민들이 “마두로를 건드리는 건 공동체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쓰인 벽 앞을 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퇴파 독재 정권을 겨냥한 중앙정보국(CIA)의 살상 포탄 비밀공작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IA는 단독, 혹은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마두로 정권을 향한 다양한 공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바르샤바 맥주 축제장서 맥주 사는 방문객들



지난 16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20회 바르샤바 맥주 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이 맥주를 사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